

연중 제 23 주일

제 1 독서: 지혜 9, 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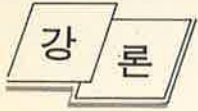
제 2 독서: 필레1, 8a. 10. 12-17

복 음: 루가 14, 25-33

# 순정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루가 14, 33).



## 신부님 전상서



윤양호 신부 / 군인회관

신부님! 어느덧 신부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 나라로 가신 지 두 해가 가까워옵니다.

신부님은 제가 군종신부로 가는 날 약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게 군사목 잘하고 돌아오게. 4년은 길다고도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세월은 빨리 흘러간다네.” 신부님! 신부님의 말씀이 옳으셨습니다. 길게 느껴지던 4년에서 벌써 3년이 지나 갔습니다. 그러나 군사목 잘하고 돌아오라시던 그 말씀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군복을 입고 살아가는 사제로서 3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군종사제로서 모든 것이 어설피고 서툰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냉담하던 젊은이들이 군에 와서 고백성사를 보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전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던 젊은이들이 신병 때부터 빵 먹는 재미로 성당에 왔다가 교리를 배우고 영세를 할 때에, 부대들을 다니며 약 500명 정도씩의 젊은 병사들 앞에서 인격교육 후에

준비해간 빵을 나누어줄 때에, 신자도 아닌 지휘관이 특별히 몇몇 병사들의 상담을 부탁했을 때에, 그리고 조당 때문에 오랜 시간들을 우울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간부들의 혼인예식 때에, 그런 때는 정말 신이 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 어느 날은 부대가 바쁘다고 신자 병력을 보내지 않아서 텅 빈 성당에서 몇 명이서 미사를 할 때, 온갖 정성을 다들인 간부교우가 다른 종교의 지휘관으로 바뀌자 즉시 성당을 안 나오게 될 때, 애써 계획한 일이 지휘관에 의하여 부결되었을 때, 가끔씩 군인사제보다는 군인으로 살기를 부대에서 전달이 올 때, 그런 때는 정말이지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신부님! 때로는 군종신부는 외로운 항해사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군이라는 거대한 물결의 바다에서 가톨릭 사제로서 한 척의 군사목이라는 작은 배를 항해해 가야 하는 까닭에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지 않은 갈등을 겪으면서 사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또한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총인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갑니다. 신부님! 하루 종일 훈련의 함성소리와 군가소리로 가득 찼던 병영에 취침 나팔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도 하루의 삶을 마치고 사제관에 돌아가기 위해 조용해진 부대 성당의 주님 앞에 잠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따라 당신 일터로 불러주신 주님 말씀을 더 죄스러움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신부님! 못다드린 이야기는 올해도 작년처럼 교구 서품식날 오후에 치명자산 중턱에 누워 계시는 당신 무덤가로 찾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님! 이 부족한 먼먼 후배를 위해 하느님께 전구해주시시오. 저도 당신을 생각하며 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여 명 >>>

# 순교자 성월

모보일(즈가리아)

한차례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 창문을 열어보니 물빛 하늘 맑은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다.

40년 만에 처음 겪는 가뭄이라고 걱정했던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것 같다.

장마조차 짧았다.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에는 산소 부족으로 떼죽음을 당한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뿜으며 하얗게 쌓였고 갈라진 논바닥에 서 있는 벼포기들이 말라 죽는 피해가 적지 않아 농민들의 애를 태웠다.

이처럼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이 하나 둘 가을꽃들이 피고 풀벌레들이 밤을 새워 울기 시작하자 저만큼 물러났다.

구슬땀을 흘렸던 농민들이 온갖 시름을 잊고 수확의 기쁨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계절이다.

9월은 '순교자 성월.'

1784년, 이 땅에 하느님의 복음이 전파된 이래 우리 조상들은 피로써 신앙을 증거했다. 특히 전주지방은 한국 최초로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성지 중 성지다.

교황 바오로 11세가 1937년 전주교구를 한국 최초의 방인 자치교구로 설정한 것도 순교자들이 꽃피운 결과 이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금의 전통 성당 일대 남문밖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바오로)과 권상연(야고보)이 참수처명을 당한 곳이며 호남의 첫사도 유허검(아우구스티누스)이 옥시형을 당한 현장이다.

현재 전북도가 제2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옛 대학병원 자리와 전주경찰서 자리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다 가뒀던 옥이었고 이곳에서 교살된 순교자들이 적지 않다.

남부시장 맞은편 초록바위는 복음 안에 살고 있던 선조 신앙인들을 전주천에 밀어 넣어 죽인 현장이며 고산 천호 공소와 여산 성당 일대, 나바위 등이 하느님을 증거하기 위해 순교로 신앙의 씨를 뿌린 성지다.

전주에서 남원으로 가는 국도변, 좁은목 약수터 맞은편에 있는 치명자산(중바위)은 한국 순교사에 길이 빛날 동정부부의 결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져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왕가의 이루어갈다(순이)와 호남의 대지주 유허검의 만아들 유허한(중철)은 독실한 신자로 결혼 4년 동안 남매생활로 깨끗하게 지내다가 신유박해 때 요한은 옥중에서 교살당하고 루갈다는 참수형을 당한 것이다.

총체적 위기 상황.

공사비를 많이 빼먹다가 일으킨 신해주대교 붕괴사건과 종합주가지수 폭락이 몰고 온 경제 불황, 교사·공무원·회사 간부들이 직장을 그만 두고 집단 가출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통령이 고속전철, 신공한 건설과 함께 6공 말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제2 이동통신사업자로 자신의 사돈을 선정했다며 부도덕성까지 거론 맹공을 가하자 슬그머니 반납하는 해프닝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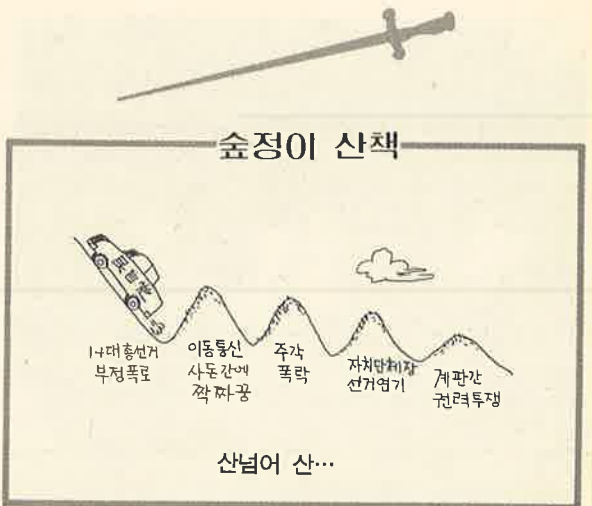
'수순에 의한 정치쇼'라는 민초들의 의구 속에 40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중국과 국교가 이뤄지고 사상을 같이하는 이웃 자유중국과는 국교가 끊어지는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지금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선조들보다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일까.

황금만능, 권력 제일인 시대, 어떻게 살아야 정의의 세울 수 있는지 '순교자 성월'을 맞아 한번쯤 생각할 수 있다면 좋겠다.

최근 치명자산 성역화 사업이 중단 1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큰 명절 추석이 들어 있는 9월에 이곳을 찾아 현대적 순교를 갈구함이 어떨런지. 전주교구가 88년 교황청에 청원한 이들 부부와 신해박해 때 참수당한 윤지충·권상연, 신유박해 때 순교한 유허검의 시복·시성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기도를 드리자.



한가위를 맞이하여

# 신자들의 차례 예식

“머느리 말미받아 본집에 성묘갈 제 닭 잡아 삶아 건져 떡고리와 술병이라. 중 추야 밝은 달에 지기 펴고 놓고 오소.”

위 시조는 추석 명절에 맞추어 지은 ‘농가 월령가’의 한 구절이다. 천만명이 이동한다는 추석 명절, 추석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집안 어른들은 물론이요 아들 손자 머느리까지 고향 찾아 귀성하는 가장 즐거운 날이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오는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 조상들은 덤지도 흠지도 않은 날씨에 마음속까지 비추는 밝은 보름달처럼 넉넉함을 가지고 햇곡과 햅쌀로 떡과 술을 빚으며 감, 대추, 밤 등 햇과일을 가묘(家廟)에 차려 놓고 차례를 지내왔다.

오는 9월11일(금) 추석을 앞두고 서로 만나고 나누며 제사를 지내는 추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가장 완전한 제사인 미사를 봉헌하지 못할 경우 가정이나 묘지에서 온 가족이 드릴 수 있는 차례 예식을 간단히 소개한다.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십자가, 사진, 초(2개), 꽃, 향과 함께 정성껏 차례상을 준비한다.



— 차례 예식 —

1. 성호경.
2. 가톨릭 성가-50, 227, 230번 등.
3. 독서-마태 5, 1~12, 요한 14, 1~14, 로마 12, 1~21.
4. 가장의 말씀.
  - ㉠ 선조들을 소개하고 가훈, 가풍 등 선조들의 말씀을 전해준다.
  - ㉡ 가정의 현실과 전망을 얘기한다.
  - ㉢ 하나님의 뜻과 선조들의 유훈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하며 사랑과 일치로 나눈다.
5. 큰절-서열순으로 영전, 묘지에 큰절을 드린다.
6. 사도신경, 부모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를 바친다.
7. 신자들의 기도(참석자 모두 바친다)
8. 성가-가톨릭 성가 436, 463번 등.
9. 주의 기도-다 함께 바친다.
10. 사랑과 일치 음식 나누기(차례 음식을 나눈다).
11. 모임 끝 감사기도.
12. 성호경.

## 요십이 (996) 김병오

사대국회의원선거때 내무장관과 출납지사가...

부정선거를 지시했었다고 어느군수님이 폭로했구나!

명자 써서 그군수님 집 때문에 불리자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있는 사람이 사는 집

무공해 천연세제 및 삼푸  
**늘 푸른 집** (전주 원주 대리점)

- 천연섬(주방세제)
- 샘이랑(세안·세발 등)
- 아기섬(유아용 비누)

전 경자(베로니카)  
☎ 86-2050  
☎ 012-682-6543

커텐장식·훈수이불·흙패션  
**천 지방**

교우 여러분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김대원(프란치스코)  
박혜순(헬레나)  
숲정이 성당 ↔ 현대APT 중간  
☎ 77-3519, 253-2461

원평 성당에서 직접 재배한  
**꿀 배**

- ① 판매기간 : 8월20일 - 10월20일
- ② 규격 : 8kg당 1박스
- ③ 가격 : 특 20,000원, 대 17,000원 중 14,000원, 소 8,000원
- ④ 주문처 : (0658)43-0880 사제관 원평 성당 최용준 신부

**대화 아채 효소 전복지사**  
제철 개선  
김영희(실비아)  
판동로 전주백화점 옆  
☎ 231-4280~1  
야간 224-8566

개업안내  
웅진한성물산주식회사 **까네트**  
훈수품(침구류) 전문업체 전주지사  
지부장 탁경희(울리안나)  
☎ 231-4662(3)  
\* 함께 일하실 분 연락바람.

**대화 신발 백화점**  
신사화·숙녀화] 총판매장  
아동화·특수화  
김문식(베드로)  
풍납문 ↔ 송약국 사거리 중간

**전주 가구점**  
최고급 나전칠기 장농·화장대  
고급 소파·침대  
맹문희(데레사)  
박병주(베드로)  
전주시 인후동 농고 정문 앞  
☎ 84-3984

뿌리를 찾아서

# 덕진 성당

— 진북팔단의 정신으로 뭉친 신앙공동체 —

1964년 6월15일 중앙 성당에서 분가하여 진북팔단을 주부로 출발한 덕진 성당은 1962년 해거(George Hager·하제오르시오) 신부를 맞아 준본당으로 시작했다. 이듬해 9월 진북대 앞 부지에 건축 면적 231.40㎡의 성당 건축공사를 시작했다가 해거 신부의 귀국으로 잠시 중단, 1964년 2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그해 6월 본당으로 설정되어 30여년 신앙공동체의 꽃을 피우고 있는 젊은 본당이다. 처음 시작과 달리 신자수의 증가로 새 성당의 건축이 불가피해지자 1977년 4월 현재의 성당(396.69㎡)과 사제관 및 회의실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동년 10월 3일 준공, 축성하였다.

제대 쪽의 진북팔단 부조와 앞마당의 성모동굴, 103위 성인상의 부조 등 특별하고 아름다운 이 성당은 1984년

5월 동산 성당이 분리되고 1985년 2월 금암 성당으로 400여명의 신자가 갈려나갔는가 하면 같은 해 10월에는 송천동 성당을 분가시켰는데 특히 송천 성당 분리시에는 당시 주임 김봉희 신부와 신자들이 힘을 모아 성당 및 부대시설은 물론 새성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목회 임원까지 일정기간 트레이닝 후 분가시키는 등 실로 열과 성을 다해 움직이는 신앙공동체 그것이였다.

1989년 8월 15일 숙원사업이었던 노후된 회합실과 사제관을 헐고 지하1층 지상 2층의 사제관, 사무실, 수녀원, 유치원, 회합실 등 다목적 건물을 신축하여 깨끗하고 산뜻한 본당으로 마무리지었다.

외관상으로 굵직굵직한 사업을 벌여왔던 것만큼이나 신자들의 신앙활



동도 내실을 기해왔는데 현재 3,500명의 신자에 1개 꼬미시움과 2개 꾸리아 산하 47개의 레지오팀이 있고 20여개 제단체가 사목회의 지원 아래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또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84년 문을 연 진북유치원은 가리마스회 수녀들과 유수한 교사진의 노력으로 전통을 자랑하는 유아교육의 산실로 자라왔다. 현재 10대 강인찬 주임신부가 사목하는 덕진 성당은 도시신자들의 공동체적 신심양양과 지역선교를 위해 날로 매진하고 있다.

명상의 자리

# 나무여

쓰러진 나무를 보면  
나도 쓰러진다.  
그 이파리와 더불어 우리는  
숨쉬고  
그 뿌리와 함께 우리는  
땅에 뿌리막고 사니  
산불이 난 걸 보면  
내 몸도 탄다.  
초목이 살아야  
우리가 살고



온갖 생물이 거기 있어야  
우리도 살아갈 수 있으니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그루  
지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며  
모든 생명을 살리고  
만물 중에 제일 이쁘고 높은  
나무여  
생명의 원천이여.

전차량 91.92년형 최신형 관광버스로 완비하였습니다.  
성지순례나 일반 전세 대절에 많이 애용하여 주십시오.

**전 일 관 광**  
(0652) 88-6666  
조 선(안토니오)

## 베로니카 플라워 숍

방식꽃꽃이회 전북지회  
동·서양란, 웨딩부케, 성전꽃꽃이  
국 성 회(베로니카)  
서 지 숙(파비안나)  
☎ 87-8427. 88-8426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내어  
**최 윤경** (유리안나)  
**이용실·이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안경 콘택트렌즈·금은시계  
**전주 오거리 천 보 당**  
손 한 성(바오로)  
정 정 님(가타리나)  
고사동 오거리 ☎ 84-4138,  
253-0707

주님이 계시기에

## 주님의 파출부



안인순(요안나) / 인후동 성당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 3).

누구나 행복을 찾으며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인지 행복의 조건들도 많다. 그중에서 참으로 인간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부요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다. 안인순(요안나·43세) 자매, 그의 고향은 상관으로 증조부 때부터 내려오는 천주교 신앙을 어릴 때부터 먹으며 4남3녀의 다섯째로 자랐다. 그러나 자라면서 미지근한 신앙 탓으로 제멋대로 살았으며 주님의 손길을 외면한 채로 방황을 일삼았다.

그러던 중 '84년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깊이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지나온 죄스런 삶에 대해 용서를 청하게 되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출애굽하듯 새로운 인생 항로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는 주님께 약속했다. “주님, 당신의 파출부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리고 하느님께 빛진 것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매일미사를 충실히 하였으며 매일매일을 특별한 지향으로 봉헌하였다.

그런데 주님은 또 한 차례의 고통의 회오리바람으로

그를 더욱 십자가의 사랑에 묶어 놓았다. 외국에 있는 남편에게서 소식이 끊어졌을 때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그는 '89년부터 성지 안내 봉사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어떤 일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쁘고 보람있는 봉사이기에 자부심마저 갖게 되었다. 점차로 순교자들에 대한 애정이 커졌으며 자신의 신앙도 한층 무르익어감을 느끼면서...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며 “나의 목숨이 있는 한 성지 안내를 꼭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얼마나 순교자를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성지 안내 외에도 프란치스코 재속 3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환자, 임종자들을 방문하면서 보살펴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다. 지금 그는 비록 넉넉하지는 못해도 아들(15세·사도요한)과 함께 기쁘게 살아간다. “주님은 견딜 수 있는 만큼 고통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에서 가난한 자로서의 평화를 엿볼 수 있다.

신자들의 소리

## 한 생명은 온 세상보다 귀합니다

배형신(로스리아) / 호성동 성당

몇 년 전 나는 갑자기 괜찮은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 오래 다닐 셈이었는데 며칠 후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미 남매가 있고 생명에 무심한 세상 사람들의 굳어진 의식과 별한 다름이 없는 나로서는 무심코 산부인과를 다녀왔다. 그러나 병원문을 나서던 순간 살인했다는 생각이 웬지 왈카 솟구쳤고 사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심한 허탈감 내지는 박탈감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결국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직장은 그만 두었고 심신은 허약해지고 말았다.

그뒤 신앙을 갖게 된 후에 행복한 가정운동이라는 단체에서 자연적 가족계획법을 배웠고 영화 ‘침묵의 질규’를 보았다. 12주 된 태아가 죽음 앞에서 수술기구를 피해 필사적인 반응을 하며 입 벌리는 장면을 보고 나의 무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진 한 생명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울었다. 우리 부부는 보속의 의미로 한 아이를 더 낳았다. 그리고 생명운동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것은 주님의 은총이고 부르심이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무지와 죄에 무던 양심으로 편한 삶을 위해 낙태한

뒤 자책감과 후유증에 시달림을 보아왔다. (아는가! 세상의 남편들이여) 비오는 날에 묵은 상처가 쭈셔오듯 한평생 문득문득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다. 60년대 가족계획이 시작되면서 덤으로 희생된 태아들의 거름더미 위에 인구조절이라는 꽃은 이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피어났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참 오묘하시다. 죄에서 은총으로 이끄시는 분이기에 이 죄인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니 내게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 그저 민승민승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꺼질 뻔한 여러 생명들을 살리고 예방한 것은 이 일을 통한 귀중한 보람이며 은총이고 자연스레 천주교를 알리게 된 것도 잔잔한 기쁨의 하나이다.

낙태 반대 서명란에 힘주어 서명하는 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당신의 정의는 드러나고야 마는군요. 그러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자원 봉사자수를 많이 보내주시시오.”라고. 그것은 한평생 이 길을 걸으리라는 나의 봉헌적 다짐이자 외침 같은 것이었다.

교회 용어 안내

# '92년 춘계 주교회의가 확정한 교회 용어

지난 주교회의의 1992년도 춘계 정기총회(3월24일-26일)에서는 천주교 용어위원회의 용어 심의 결과 보고를 토대로 하여 용어를 확정하였는데 다음은 변경된 용어만을 실은 것이다.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변경 확정된 이 용어들은 반드시 공식 문서와 모든 출판물에서 그대로 사용되어야 하고, 아직 심의 확정되지 않은 용어들은 어떤 개인이나 또는 단체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 인용 부호 “ ”안에 있는 내용이 주교회의의 결정이며, 그 아래 부분은 천주교 용어위원회에서 정리한 설명 또는 그 예이다.

### 1. 특수 주일의 명칭

“기존대로-주일을 그대로 사용한다.”

- 사회복지주일(1월 마지막 주일)
- 성소주일(부활 제4주일)
- 홍보주일(주의 승천 대축일)
- 청소년주일(5월 마지막 주일)
- 교황주일(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가까운 주일)
- 군인주일(10월 첫주일)
- 전교주일(10월 마지막 전 주일)
- 평신도주일(연중 마지막 전 주일)
- 인권주일(대림 제2주일)    자선주일(대림 제3주일)

‘세계 평화의 날’(1월 1일)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6월 25일에 가까운 주일), ‘세계 병자의 날’(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의 명칭은 주일이 아니거나 특정일과 관련되므로, ‘-날’을 그대로 사용한다.

### 2. ‘성령’

“성신 대신에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되 기존의 전례문에서는 성신을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이 기도문을 만들 때에는 성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삼위일체의 제3위격을 뜻하는 Spiritus Sanctus는

‘하느님’(神)의 일, 숨, 입김, 바람과 영을 뜻하는 성서 용어(πνευμα, πνευμα)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동적인 우리 말 ‘성령’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 3. ‘대성전’과 ‘성당’, ‘성전’

“용어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용어를 확정하기로 한다.”

Basilica는 ‘대성전’, Ecclesia Cathedralis는 ‘주교좌 성당’, Ecclesia는 ‘성당’이라고 하되, 성서의 ‘성전’이라는 용어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4. ‘봉헌’, ‘봉헌식’

“용어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용어를 확정하기로 한다.”

성당 등의 ‘Dedicatio’와 ‘축성’(Consecratio)을 구별하여 ‘봉헌’, ‘봉헌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축성’이라는 말을 ‘축복’과 명확하게 구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성전 축성식’이라는 말은 ‘성당 봉헌식’으로, ‘성수 축성’은 ‘성수 축복’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 5. 한국 순교 성인 103위의 이름 표기

“외국 이름의 세례명도 그대로 사용하는 등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표기한다. 단, 한원서 성인의 이름은 한재권으로 바로잡아 로마에 보고한다.”

예컨대,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성요셉 한재권 순교자’와 같은 순서로 표기하여야 한다.

### 6. ‘대사, 면죄부, 대사부’

“용어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용어를 확정하기로 한다.”

‘대사’(大赦)라는 용어가 교회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 교과서 등에서 ‘면죄부’라고 사용되고 있어, 이를 분명히 밝혀두기로 하였다. ‘면죄부’는 분명히 잘못된 용어이고, 일본에서도 ‘면죄부’를 오역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上智大學 中世思想研究所 編譯, 「キリスト 敎史」, 東京, 講談社, 1981), 중국에서도 ‘대사’로 쓰고 있으므로, 우리도 ‘대사’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관인 다예 미술 학원

미술 수강생 모집

크레파스화·수채화 집중 지도  
(아동미술 전공교사와  
원장 직점 지도)  
박 경 화(마리아)  
☎ 223-8355

#### 엑스포 커텐

브라인드·커텐

김 정 기(플로리아니오)  
소 미 자(디나)

영등동 신일아파트 송죽알로에 옆  
☎ (0653)858-1298

#### 박정열 치과의원

원장 박 정 열  
김선자(베로니카)

경원동 동문 사거리  
(민자당사 옆)  
☎ 231-4200

#### 양미나 피아노 교습소

음대 대학원 졸업  
철저한 음악이론 및 개인지도

양 미 나(로사)

관동로 현대자동차 맞은편  
☎ 82-2230·83-5194

# 교 구 소 식

- ❖ **솔개재 교회묘지 합동 위령미사**
  - 때 : 9월 11일(금) 오전11시30분  
합동 연도  
    나트12시 합동 위령미사
  - 곳 : 솔개재, 교회묘지
  - 당일 묘지 주차장은 차량 출입을 일체할 수 없습니다.
- ❖ **문규현 신부와 구속방북인사들을 위한 기도회**
  - 때 : 9월14일(월) 오후7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 ❖ **한가위(추석) 금육재 관면**
  - 오는 9월11일(금)은 고유 명절인 추석 대축일 관계로 금육재를 관면합니다.
- ❖ **교구청 추석 명절 휴무**
  - 때 : 9월10일-12일
- ❖ **교구 전산화 연구모임**
  - 때 : 9월7일(월) 오전10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 **예비 신학생 모임**
  - 때 : 9월13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 때 : 9월7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9월21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두 개의 십자가
  - 내용 :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나치정권에 반대하던 브란스마 신부. 그는 생체 실험이 자행되던 다카우 수용소 안에 핀 믿음과 사랑의 꽃이었다.
  - 회비 : 1,000원
- ❖ **축! 영명**
  - 8일(성모이세) 이상섭 신부님.



## 성소모임

-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때 : 9월13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84-2276
- ❖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 때 : 9월13일 오후2시
  - 곳 : 숲정이 성당 수녀원  
(0652)252-9567

## ■ 권해드리고 싶은 책 ■

- **역사의 땅 배움의 땅 배론**  
배운하/성바오로출판사  
이 책은 배론성지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최양업 신부의 업적도 충실히 담고 있어 한국교회사에 또다른 지표가 되어줄 것이다.
-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아요**  
마리 발터/한정옥/성바오로출판사  
20여년간 정신병과 투병하다가 기적적으로 재생의 길을 걷게 된 마리 발터여사의 감동적인 투병기.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가족 건강-주부의 몫

가정에서 주부들의 일 중에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 생각된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로서 밥상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 홍수가 나면 오히려 먹을 물이 귀하듯 지금 우리는 음식물의 홍수 속에 있으면서도 '먹을 음식'이 귀하다. 밥과 채소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가, 반찬엔 방부제, 감미료, 화학조미료가, 가공식품엔 더욱 다양한 해로운 물질이, 과일엔 발암성인 낙과방지제, 해산물엔 중금속

이...  
주부들이 정성들여 만든 밥상엔 온통 독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을 쓰면 깨끗한(무농약, 무공해) 식품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쉽게 살 수 있는 곳에 늘어져 있는 독(각종 인스턴트류, 화학물질 사용 농작물 등)보다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독이 없는 제대로된 먹을거리를 찾아 신선하고 깨끗한 밥상을 가족에게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 직원 및 봉사자 모집

- 본 여주 라파엘의 집(중복장애 장애인시설)에서는 관리 및 보육직 그리고 상주 봉사자(여)를 모집합니다.
- 연락처 : (0337)83-6637

### 샤넬안경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비아)  
☎ 54-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인주단**  
김 한 중(요한)  
황 인 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묘역  
☎ 84-7294

방송애프터 시공의 선두업체  
인켈PA·비디오 촬영 전문  
**백운전자**  
기술과 정성을 다하는 완벽한 방송  
효과의 만족을 드립니다.  
백정수(리노), 이순님(테레사)  
전주 중앙 성당 뒤  
☎(0652)252-0231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동서로삼익피아노**  
종합 악기 판매장  
(피아노, 전자오ργαν, 음향시스템 전문매장)  
김 태 우(알폰소)  
황 진 숙(안젤라)  
☎ 88-7717~8  
(동서관통로 다가교 입구)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그날 성서귀절을 한번 더 읽읍시다.

1. 가정방문 : 15일부터.
2. 추석명절 합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 사무실에 접수. 조상들을 위하여 미사성체를 바칩시다.
3. 추석명절 대축일 미사시간 안내 : 11일(금) - 새벽 5시 30분, 12일(토) - 어린이미사는 없고 저녁 7시 30분 미사만 있음.
4. 모임 : ① 울뜨레아(오늘, 10시미사 후) ② 부녀회(8일, 어머니미사 후)
5. 주일미사에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6. 금주정소 : 중노 3, 4반  
차주정소 : 중노 5, 6반.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1. 성지순례 : 27일(주일) 장소-베티성지. 회비-8,000원. 13일까지 접수 마감. 2. 예비자 교리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신부님반. 주일 오전 9시-수녀님반. 3. 추석 합동 위령미사(9월 11일) : 오전 6시, 오전 10시. 합동 미사예물 10일까지 사무실에서 접수. 4. 회합 : ① 대건회(6일 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6일 저녁미사 후) ③ 구역분과회(8일 오전 10시) ④ 울뜨레아(8일 저녁미사 후) ⑤ 요셉회(13일 공식미사 후) ⑥ 꾸리아(13일 오후 2시) ⑥ 청년회(13일 저녁미사 후) ※ 안나회-(추석관계로 없음) 5. 성시간 : 17일 저녁 11 : 30분(추석관계로 변경되었음) 추석전례 : 전승훈, 독서-김현덕씨 부부, 봉헌-장재환씨 가족, 차주전례 : 조옥례, 독서-한광석씨 부부, 봉헌-김종근씨 가족.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1일(금) 공식미사 만 있음. 미사예물-사무실에 접수. 2. 꾸리아 : 공식미사 후. 3. 성서강의휴강 : 10일(목) 추석관계로. 4. 교무금 납부의 날 : 매일 첫주(오늘) 5. 수녀원 신축헌금 : 총신입액-3,995만원, 봉헌액-1,513만원. 6. 성서읽기 : 역대상 1장~13장. 7. 금주정소 : 성실하신 동경녀Pr. 8. 금주전례 : 해설-여정진, 독서-①한동욱, ②주영래, 봉헌-유순천, 유춘근씨 부부, 추석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양대환, ②김갑자, 봉헌-이유동, 문영호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박시도, ②이석남, 봉헌-하태중, 이명수씨 부부.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연중 제23주일 ! (9월은 순교자성월)

1. 회의 : ① 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 성심회-9월 13일(일) 오후 2시 ③ 프란치스코회-다음주일 오후 2시 ④ 꾸리아-오늘 오후 2시.
2. 알림 : ① 미사시간 변경-9월 13일(일)부터 새벽미사-오전 6시, 저녁미사-오후 7시로 변경하여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② 추석 명절미사-9월 11일(금) (추석날) 오전 10시 미사(저녁미사없음) ③ 추석 합동 위령미사 예물-사무실에 접수사서요(9월 10일 오전까지) ④ 추수감사 미사-9월 10일(목) 오전 10시(예물접수바랍니다) ⑤ 영세식-9월 20일 ※ 중학교리 9월 15일~18일까지.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점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한가위 대축일.

1. 미사안내 : 10일-저녁 8시, 11일-10시 30분, 12일-미사없음, 13일-10시 30분, 저녁 8시.
2. 추석 합동 위령미사 : 사무실에 접수.
3. 한가위 대축일 헛과일 봉헌 : 9월 8일 까지.
4. 본당의 날 행사 : 구역별 친선 체육대회로 함.
5. 청소봉사 : 4구역 1반, 2반, 3반.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 영 태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1. 금주 : ① 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② 재속글라라형제회(후 1시 30분)
2. 자모회 정기총회겸 피점 : 8일(화) 오전 9시.
3. 돈·보스교회 : 9일(오후 7시 30분)
4. 추석 합동 위령미사 : 사무실에 접수. 당일 미사안내 : 새벽 5시 30분, 오전 9시, 10시 30분.
5. 감사합니다 : 지하수 개발헌금(이백만원) 이기순(리디아), 고귀순(아가다)
6. 차주 : ① 자모회(전 10시) ② 일치의 모후 Cu(후 2시) ③ 사목회(후 8시)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 후  
F A 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이 완 규

1. 추석 합동 위령미사 : 11일 전 5시 30분, 전 10시 30분. 가정마다 선영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시기 바랍. 10일까지 \* 개인적으로 가을 수확을 한가지씩 주님께 봉헌 예절.
2. 추석명절 이웃돕기 자선헌금 : 9일 어머니미사, 아버지미사.
3. 본당의 날 준비 : 20일 전 10시 30분, 구역별로 운동회 준비.
4. 전국 울뜨레아 대회 : 27일 서울 올림픽 광원, 전착순 45명.
5. 회의 : 꾸리아-6일 후 2시 30분. 자모회-9일 어머니미사 후. 청년회-13일 후 8시, 소속된 청년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6. 추석맞이 대청소 : 7일 전 9시, 성당 내외부들 깨끗이 하고 선영을 모시도록 합니다.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사목회 : 오늘 오후 8시-동남삼정APT 3동 205호
2. 구역장월례회 : 8일(화) 오후 8시 30분.
3. 성모회 : 다음주일 미사 후.
4. 추석 합동 위령 미사예물을 사무실에 접수해 주십시오.
5. 추석 합동미사 : 11일(금) 오전 10시.
6. 금주전례 : 이완자, 독서·봉헌-장은수, 백남두. 차주전례 : 장병순, 독서·봉헌-김춘민, 이광승.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사목회장 이 동 섭

※ 오늘은 연중제23주일입니다.

1. 안나요셉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모회 : 9일(오전 11시)
3. 합동위령미사 : 11일(금) 새벽 6시, 10시미사가 있으니 많이 참석하시어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예물봉투는 미사 때 직접 봉헌하시고 미참석시에는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4. 울뜨레아 : 다음주 오전 12시. ※ 무동약고추-13일까지 사무실에 접수(1근-7,500원) 미사안내 금주 : 순전하신 모후, 정 의의 거울. 차주 : 다위담, 계약의 채.

□ 지난주 봉헌금 : 1,202,310원 □ 교무금 : 2,008,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1. 모임안내 : ① 꾸리아-공식미사 후 ② 재대회-7(월) 10시.
2. 성지순례 : 27(일) 장소-해미.
3. 추석 합동미사 : 오전 10시.
4. 추석 합동미사 예물은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5. 미사시간 변경 : 화, 수, 토, 일 저녁미사 7시. 차주모임-울뜨레아. 금주전례 : 해설-임창수, 독서-①인병용, ②정영호. 봉헌안내-김봉주 부부, 이재철 부부. 차주전례 : 해설-김광년, 독서-①고영표, ②이병희. 봉헌안내-이재진 부부, 이태연 부부.